신임 대학총장에게 듣는다 - 중앙대 안국신 총장

"국사, 내년부터 중앙대 교양 필수로 지정"

안국신(64) 중앙대 총장은 "내년부터 한국사를 1학년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한국사를 교양 필수로 하는 것은 1918년 개교 이래 93년 만에 처음"이라며 "글로벌 명문대학이 되려면 학생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뽑는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내년부터 강의전담교수제를 전면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 총장은 논리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중앙대 업그레이드 구상을 밝혔다.

◈**안국신 총장**=고향은 전북 김제(1947년생).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83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 정경대학장·부총장·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올 3월 1일 제13대 총장에 취임했다. 저서 『현대경제학』은 5판을 낼 정도로 경제학도의 필독서로 불린다.

-대부분의 대학이 한국사를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데 중앙대가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한국사에서 얻는 지혜와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명문대로 성장하려면 역사에 깃든 지혜와 교훈을 아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내년부터 신입생 4400여 명 전원에게 2학점짜리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공부시키려는 이유다."

-그동안 한국사 교육은 어떻게 했나.

"'근현대사의 이해'와 '역사란 무엇인가' 등의 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개설했다. 필수가 아니어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통사(通史)를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대학도 환경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개교 93년 만에 첫 결정

글로벌 명문대로 성장하려면 올바른 역사관 갖춘 인재 필수

대입에서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요구하는 서울대는 물론 대부분의 대학은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사를 고교 필수로 하고, 공무원·교사 임용시험에 반영키로 해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겠다는 계획이 신선하다.

"대학의 제일 사명은 잘 가르치는 일이다. 국내 최초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해 학부 교육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 대부분 대학이 재정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많이 채용했고 우리도 그랬다. 이런 상태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강의전담교수와 기존 강사는 뭐가 다른가.

"학생 교육만 전담하는 교수로 시간강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처우와 공동 연구실 사용 등 전임교수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2학기부터 수학·경제학·물리학 등 학문의 기초가 되고 학생 수요가 많은 전공부터 도입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과로 확대해 현재 66%인 강사 비율을 교양은 30%, 전공은 2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 강의가 중요하다. KAIST도 영어 강의가 논란이 됐다.

강의전담교수제 첫 도입

뽑는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 연구실 제공 전임교수급 대우

"영어는 당연히 필수다. 여름학기에 몰입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희망자를 모아 한 달간 생활관에 기숙시키며 하루 8시간 이상 영어에 빠지게 하겠다. 읽기·쓰기·말하기 코스를 밟으면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교육에만 치중하면 연구가 소홀해질 수 있다.

"다음 달 준공하는 첨단 연구개발(R&D)센터는 중앙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상징이다. 연면적 3만8360㎡(지상 11층, 지하 4층)로 본교 캠퍼스 면적의 4분의 1 규모다. 약대와 병원 임상시험실, 자연과학대 등 최고 시설을 갖춘다."

-교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선택과 집중으로 특화 분야를 육성하려고 계열별 부총장제를 도입했다. 이번 학기부터 인문사회, 자연이공, 경영경제, 예체능, 의학 등 5개 계열별 부총장을 뒀다. 이들은 총장 역할을 한다. 매년 잘하는 계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교수 지원도 차등한다."

중앙대는 두산그룹이 인수한 2008년 이후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부)를 10개 단과대 47개 학과(부)로 통폐합했다.

-두산에 개혁 주도권을 내준 게 아닌가.

"두산이 재단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은 없었을 것이다. 중앙대가 아니었다면 개혁도 없었다. 개혁의 주체는 학교다."

만난 사람=**양영유** 정책사회 데스크
정리=**윤석만**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sam@joongang.co.kr

브리핑

이 대통령, 8일부터 유럽 3개국 순방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8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독일·덴마크·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 덴마크에서 마르그레테 2세 여왕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순방은 유럽연합(EU) 주요국들과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7월 1일)를 앞두고 EU의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출마 여부, 답변하기 곤란"

노무현재단 문재인(사진) 이사장은 1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보 진영의) 위기감이 큰 만큼 이런저런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나도 (정치 참여)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행사 고유제(중대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다. 문 이사장은 또 "'박근혜 대세론'이 막강하지만 우리 쪽도 분열되지 않고 좋은 선수를 만들어 내고 최대한의 경쟁을 참여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후 "'현실정치'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LH 본사,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 가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일 "LH의 본사를 진주·전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무 비효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고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며 "이달 중엔 LH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1학년도 2학기
홍익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1. 5. 9(월) ~ 5. 17(화)
전형일 2011. 6. 3(금)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모든 계열 / 서울캠퍼스 미술·디자인계열 제외)

전문대학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석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세무학전공) 02-320-1295 석사학위과정 야간
광고홍보대학원(뉴미디어콘텐츠전공) 02-320-1262 석사학위과정 야간
교육대학원(수학교육전공) 02-320-1285 석사학위과정 야간
영상대학원(프로덕션디자인전공) 02-320-1247 석사학위과정 야간

모집학과(전공),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hongik.ac.kr/grad

산업과 예술의 만남
홍익대학교

2011학년도 i-MBA 모집
해외대학 복수학위 MBA

i-MBA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해외 명문대학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기업체 핵심인재 대상 MBA과정으로 선진 비즈니스스쿨의 MBA 커리큘럼과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17년간 3,200여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선택한 i-MBA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MBA, 그 이상의 MBA를 제시합니다

일반경영 전공	기술경영 전공
알토대학교 (前 헬싱키경제대) 복수학위 취득가능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복수학위 취득가능
문의 : 02-360-0737 cylee@assist.ac.kr	문의 : 02-360-0736 jkahn@assist.ac.kr

지원일정 : 2011년 8월 5일 까지 / 2011년 9월 개원(예정)
직장과 병행이 가능한 일정(Part-time)으로 교육이 진행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mba.assist.ac.kr) 참고

1차 입학설명회 5월 24일(화) 19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남역) - 신청 : 홈페이지
2차 입학설명회 2011년 6월 말 예정 (홈페이지 참조)

* 관심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 본 과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학과로 개설됩니다.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국토연구원 원장 초빙공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관계법령에 의해 경제·인문사회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및 국가정책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겸직 불가)

□ 제출서류 (각 1부)
○ 이력서(사진 첨부)
○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이내)
○ 연구기관 운영 및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A4 5매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서류제출 방법 : 직접 또는 우송

□ 서류제출 기한 : 2011. 5. 2.(월) ~ 5. 12.(목) 18:00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137-86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실 창의경영팀 (☎02-571-2603)

□ 기타문의
○ 유관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기간, 접수처 등은 상기와 같습니다.)
○ 저서, 학위논문·학술논문·연구용역보고서를 구분하여 기술하되, 공동연구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구회 홈페이지 : www.nrcs.re.kr
○ 담당자 : js@nrcs.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